

TO: 박영숙 이사장님 (031-446-2845)

FROM: 한국여성재단 김 권선 인장

## 3100명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나눔의 축제

KT7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 나라의 딸, 아들들이 함께 우뚝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12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창립한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싱그러운 5월이 되면 나눔의 축제를 벌인다. 2003년에는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선한 나눔의 손길을 펴고자 하는 셀리브리티들에게 이를 실천하고, 그러한 기부활동을 나눔과 여성에 관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부릴레이는 5월 1일 100인의 릴레이 '이끌이'들이 자기가 먼저 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권고해서 나눔의 바통을 31일까지 이어가면 3100명의 셀리브리티들의 딸들을 위한 5월의 든든한 동아줄이 엮여지게 된다. 이 동아줄의 특별한 힘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위해 나누어 줄 것을 권고하는 기쁨도 경험한 사람들로 만들어 진 인간사슬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기부는 많이 가진 사람 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거액의 기부자들만이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부는 특별한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한 미국사회에서는 한 단체의 운영이나 활동에 한 사람이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의 십시일반의 기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기부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일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게 하기 때문이다.

안양의 나병 환자촌인 나자로 마을의 이경제 신부는 나환자들을 위한 식당건축을 위해 작가이자 가톨릭 외국 선교활동가인 소노 아야코에게 건축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순수 나눔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은 좋은 일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나누어주도록 하십시오.' 또한 몇 일전 읽은 신문 칼럼도 '인도의 거지는 자기에게 베푼 적선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 하지 않는다. 그네들 생각은 베풀면 베푼 사람에게 베푼 만큼의 좋은 일이 돌아간다는 데서 베푼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구원이 되는가 하면 베푼 사람은 베풀므로 구원은 받는다 설파하며 나눔의 원-원 원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나눔의 철학이 살아있는 기부 캠페인이 바로 한국여성재단이 금년 5월에 전개하고 있는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100인 기부 릴레이'이다. 시작한 지 보름만에 100인의 이 꿈이들에게 대한 사람의 바통이 이어짐에 따라 큰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이는 왜 나에게 이 꿈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또는 나는 어떤 이 꿈이의 줄에 서기를 원한다 등의 전화가 재단 사무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한다. 또 열두 살 어린이가 '내가 기부 릴레이에 참가하면 엄마가 하는 어려운 여성을 돕는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한달 용돈 7000원보다 더 많은 일 만원을 생애 첫 기부금으로 낸 것을 비롯해 여성계, 문화예술계, 정,관계, 경제계 등에서 각기의 줄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름들도 '배출나눔줄' '41세 아버지 줄' '여고동창줄' 등 다양하다. 내가 빠질 수는 없다는 데서 뒤늦게 참가한 이들도 있어서 이 꿈이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기회는 아직도 모두에게 열려있다. 이

이번 이 100인 기부 릴레이의 발상은 KTF 여자사랑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100명의 드라마 캠페인의 모델들이 모델료를 한국여성재단에 릴레이 기부하고 있는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시작한 기부 릴레이가 이제는 사회 전반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로 이어지고, 이 바통은 수많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쉬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 5월 3100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나눔의 축제가 그 파장을 널리널리 펼쳐 나도 너도 나눔의 보람을 느끼며 다른 이에게 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